

중권 다이제스트



KB증권 '비대면 투자미식회' 관심↑

KB증권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비대면 투자미식회'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비대면 투자미식회'는 고객들이 추천한 유명 면(麵) 맛집에서 면식과 투자설명회가 이뤄지는 이색적인 행사로, 대회 30명의 고객들을 추천하여 총 10회 진행되는 설명회에서 약 3000여명의 투자자가 참가 신청해 평균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된 고객은 면요리 시식 후 KB증권 내부 강사로부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 유망 투자 종목 등의 정보 공유 시간을 가진 후 현장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비대면투자미식회를 홍보하는 디지털 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후 조회수 500만건을 돌파했다. /김문호 기자



IBK투자증권 투자기업 다자간 협약 체결

IBK투자증권은 경기도 가천대학교에서 경기남부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간 '상호 협력을 위한 투자기업 간담회 및 다자간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다자간 협약식에는 대학교, 기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총 76개 기관이 참여해 청년 우수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은수미 성남시장 등 지자체 및 5개 공공기관과 이길여 가천대 총장 등 7개 대학 관계자, 풀무원·GS리테일 등 3개 대기업과 IBK베스트채프인 기업인 이니스트 등 60개 중소기업 관계자까지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손영지 기자

유안타증권 유금손실 부담 줄인 ELS 3종

유안타증권 오는 17일까지 상품별로 각각 수익성 높이거나 유금손실 가능성을 낮춘 유안타 휴먼 ELS 3종을 총 1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휴먼 ELS 제4060호'는 조건 충족 시 상환되는 수익률을 높여 수익성을 강화했다. 만기 3년, 조기 상환 주기 6개월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홍콩항셱중국기업(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 50),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2%(6개월), 90%(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일 때 연 7.00%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 상환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21.00%(연 7.00%)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손영지 기자

지주사 수혜로 시너지 극대화... 27일 상장

IPO기자간담회

롯데정보통신

12년 만에 진행되는 롯데그룹 IPO 지주사와 시너지 효과 매력포인트 공모 428만6000주... 총 발행 30%

정보기술(IT) 솔루션 기업 롯데정보통신이 이달 말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2006년 롯데쇼핑 이후 12년 만에 진행되는 롯데그룹 기업공개(IPO)다. 이번 상장 성공여부에 따라 남은 롯데지주 계열사 상장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롯데정보통신은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까지 수요예측을 마무리하고 공모가(2만8300원~3만3800원)를 확정지은 뒤 오는 17, 18일 청약할 계획이다. 상장은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1996년 설립된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2년 간 롯데그룹의 IT를 총괄해 온 주요 계열사다. 롯데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가산동에 본사와 통합정보센터, 대전과 경기 용인에 각각 재해복구센터와 글로벌 대외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롯데정보통신 IPO 기자간담회에서 마용득 대표이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

주요 사업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매출의 54% 비중을 차지하는 ITO 서비스, 38%를 차지하는 IT시스템 통합 운영 디지털전환(DT) 사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전개하는 글로벌 IT 서비스 등이다. 이들의 최근 3년(2015~2017년) 영업이익의 연 평균 성장률은 각각 3.3%, 6.1%, 22.7%다.

롯데정보통신의 투자 매력은 무엇보다 지주사와의 시너지다. 롯데그룹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사업 전 영역에

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IT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롯데지주 전체 매출에서 IT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69%에서 지난 해 0.97%로 증가했다. 올해는 그 투자 비중이 1%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이나 화학을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 및 물류 시스템, 유통 계열사들의 판매 채널 통합 등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마용득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롯데그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대 수혜기업"이라며 "새로운 기술기반을 활용해 그룹 비즈니스로 대폭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롯데정보통신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롯데월드타워의 IT구축을 총괄하여 지능형빌딩시스템(IBS), 실내위치기반서비스, 융합보안, 스마트오피스 등을 선보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국내 스마트톨링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톨링은 국내 사업자 가운데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업계 평가다.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증권거래 솔루션 운영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호찌민 증권거래소에 차세대 거래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유통과 결제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과 의료 정보 분야에서도 자체 기술의 현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온라인 유통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거점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 공모 주식수는 총 발행 주식의 30%인 428만6000주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현재 주력사업인 IT아웃소싱 기술 고도화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물류솔루션, 스마트팩토리 등 신기술 기반의 IT 서비스에 사용된다.

이번 롯데정보통신의 상장은 '롯데제과 → 롯데리아 → 대흥기획 → 롯데정보통신 → 롯데제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작업의 일환이다. 앞서 롯데지주는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위해 비상장 자회사 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만큼 앞으로 코리아세븐, 롯데시네마 등 잠재적 IPO 후보 기업들도 상장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마대표는 "롯데정보통신의 첫 상장은 롯데지주에 의미있는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장 후 주주환원 정책 등에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27일 코스피에 상장하는 롯데정보통신의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최고의 부자보다 최고의 기부자 되고파"

미래에셋,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초점

대학생 장학사업·청소년 교육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나눔문화 앞장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기보다 최고의 기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미래의 인재에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셋이 고객과 사회로부터 얻은 것을 환원하는 길"이란 지론을 갖고 있다.

지난 2000년 3월 설립된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은 글로벌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춰 대학생 장학사업과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핵심으로 운영한다. 계열사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설립 후 18년간 약 23만여명(2018년4월말기준)의 청소년을 지원해왔다.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밑바탕으로 봉사활동 및 정기기부를 통해 사내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에셋은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건강한 꿈을 꿀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해외 교환장학생 4517명, 국내장학생 3292명,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122명 등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7900여명에 달한다.

특히 '해외 교환장학생'은 모교에서 해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교환학생 장학금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학문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500여 명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해



지난 2015년 제14회 중국 상하이에서 글로벌 문화체험단의 모습(왼쪽)과 2016년 미래에셋 장학생들이 벽화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외를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글로벌리더대상정' 프로그램과 '글로벌 문화체험단'을 통해 금융지구 견학, 글로벌 기업 탐방, 역사 유적지 방문 등 세계 경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사회 조성

미래에셋은 경제 양극화 현상과 가정의 해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희망캠프, 청소년 비전캠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드림 도서지원'은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시설에 기증된 도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자기만의 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상이며 지난 2013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7만권(7만 1772권)이 넘는 도서를 지원했다.

'청소년 금융진로교육'은 투자전문그룹으로서 미래에셋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금융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체험형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



주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 교육한다.

◆1%희망나눔 캠페인...따뜻한자본주의

미래에셋은 사회공헌사업 외에도 나눔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창립 다음해인 98년 미래에셋육영재단을 만들고, 2000년 75억원의 사재를 출현해 미래에셋박현주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사회공헌 활동의 실천을 함께 이루고자 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의 실천으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약 216억원에 이르는 배당금 전액을 기부해오고 있다.

미래에셋 임원들은 매달 급여의 1%를 기부하는 '임원 1%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하여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직원들 역시 기부운동 '사랑합니다'를 통해 정기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개인의 기부액만큼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기부금을 2배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한화건설

'수원 권선 꿈에그린' 계약 92% 입주 순항

한화건설이 건설한 대규모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수원 권선 꿈에그린'의 계약률이 최근 92%를 돌파했다.

이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99에 32개동 지하 2층, 지상 15~20층, 전용면적 59~84㎡, 2400가구로 조성됐다. 지난 3월 입주를 개시해 일부 계약 해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계약을 진행 중이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은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지 중앙에 7500㎡에 이르는 초대형 선큰광장을 설치하고 조깅트랙, 야외 카페,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학습놀이존, 플레이존, 학습체육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했다. 지상은 주차장을 없애 자연 친화형 단지로 만들었다.

이런 시설들은 보육 및 교육 특화 서비스와 연계되어 운영된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2곳(시립 꿈에어린이집, 시립 그린어린이집)이 조만간 입소를 시작한다. 아울러 ▲음악놀이, 미술놀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습놀이존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존 ▲운동, 스포츠 등 신체발달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학습체육시설 ▲독서실 및 도서관 등을 조성해 단지 내에서 각종 교육을 해결할 수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